

2024. 5. 14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3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총괄부 한강개발기획과

한강사업총괄부장

윤석환

02-3780-0747

사진있음

사진없음

매수 : 7매

한강개발기획과장

이주영

02-3780-0630

10월, 한강을 누빌 리버버스 이름을 지어주세요... 혁신·편의성 담아 제안

- 13일~22일 ‘한강 리버버스’ 명칭 공모...지역·연령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
- 한강 장점·대중 공감 이해하기 쉬운 명칭 선정, 선정된 이름은 10월 운항시 실제 사용
- 9월까지 선박 건조·선착장 조성완료, 10월부터 7개 선착장 운행.기후동행카드로도 탑승

-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‘한강 리버버스’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.
- 서울시는 이달 13일(월)부터 22일(수)까지 10일 동안 ‘한강 리버버스’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 지역·연령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
- ‘리버버스’라는 이름은 해외에서 사용 중인 사례로, 시는 한강에서 처음으로 운항하는 수상 교통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 대국민 공모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.
- 아울러 대국민 명칭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이름을 짓는 것은 물론, 한강을 이용한 혁신적인 수상 교통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알린다는 목표다.

- ‘한강 리버버스’의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고 싶은 국민은 서울시 누리집 (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notice.do#list/1),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누리집 (<https://hangang.seoul.go.kr/www/bbsPost/30/list.do?mid=608#list/1>), 내손안에 서울 (<https://mediahub.seoul.go.kr/competition/competitionList.do>)에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이메일(hangang2405@gmail.com)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 하면 된다.

- 서울시는 자체·전문가 심사를 통해 ‘한강 리버버스’의 혁신성과 편의성,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,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며,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인지 등을 종합 평가한 후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.

- 최종 선정된 이름은 올 10월 ‘한강 리버버스’를 운항할 때 실제로 사용되며, 수상자에게는 총 1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. 선정 결과는 6월중 미래한강본부 누리집과 내손안에 서울에 공개된다. 수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.
 - 시민이 제안한 명칭은 심사를 통해 총 9건이 선정된다. 대상 1명(50만 원), 최우수상 2명(각 20만 원), 우수상 6명(각 10만 원)에게 문화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.

- 명칭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누리집과 내손안에 서울(검색란에 ‘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’ 입력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- 한편, ‘한강 리버버스’는 서울시가 작년 3월 발표한 ‘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’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다. 서울시는 올 9월까지 선박 8대 건조와 선착장 조성, 주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개선 사업

등을 모두 끝낸 후 오는 10월에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.

- ‘한강 리버버스’는 마곡, 망원, 여의도, 잠원, 옥수, 뚝섬, 잠실 등 총 7개 선착장을 대상으로 평일에는 6시 30분~22시 30분(68회 운항), 주말과 공휴일에는 9시 30분~22시 30분(48회 운항)에 운항하고, 평일 출·퇴근 시간대인 6시 30분~9시와 18시~20시 30분에는 15분 간격, 그 외 평일 시간대와 공휴일 및 주말에는 30분 간격으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항할 예정이다.
 - 요금은 3천 원이며, 한강 리버버스까지 이용 가능한 6만 8천 원(따릉이 제외시 6만 5천 원)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.
-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한강에서 처음으로 운항하는 수상 교통 ‘한강 리버버스’의 혁신성, 편의성 등 장점이 반영된 참신한 이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.”며 “최종 선정된 이름은 오는 10월 ‘한강 리버버스’를 운항할 때 실제로 사용할 것이다. 명칭 공모에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붙임 : 한강 리버버스 명칭 시민공모 포스터, 한강 리버버스 사업개요



SEOUL MY SOUL

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전

여유로운 출퇴근, [] 덕분에!

2024년 10월 탄생하는 수상교통수단 '한강 리버버스'의 이름을 찾습니다!

참여기간 2024. 5. 13. ~ 5. 22. 24시까지

참여대상 국민 누구나 (제한없음)

참여방법 이메일 접수 hangang2405@gmail.com
※ 한강리버버스 명칭 공모 신청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

시상내역 최종 9명 선정, 총 상금 15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
※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



한강 리버버스 사업개요

- 사업취지 : 한강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
- 핵심내용 : 수상을 이용한 한강변 주요 주거·업무·상업·관광 지역 연결
- 선박제원 : 개인 좌석(199석) 및 테이블, 선내 카페테리아, 자전거 거치대 (22개), 교통약자배려석 등



※ 선박의 색채 등과 관련된 외부 디자인은 변경 예정입니다.

자세히 알아보아요

○ 한강 리버버스란 무엇인가요?

- 선박을 타고 서울 한강변 주요 지점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입니다.



○ 언제부터,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?

- 2024년 10월 중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며, 한강내 7개 선착장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- **마곡**(가양나들목 인근), **망원**(망원나들목 인근), **여의도**(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벤트 광장 인근), **잠원**(신사나들목 인근), **옥수**(옥수나들목 인근), **뚝섬**(뚝섬한강공원 내 청담대교 하부), **잠실**(잠실새내나들목 인근) 선착장에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.

○ 운항 노선 및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 기본 운항 노선은 30분 간격으로 7개 선착장을 양방향 편도 운항하며 (마곡↔망원↔여의도↔잠원↔옥수↔뚝섬↔잠실), 출퇴근 시간(06:30~09:00, 18:00~20:30)은 15분 간격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.
- 출퇴근 시간에는 급행 노선(마곡↔여의도↔잠실)을 추가 운항합니다.

- 이용 시간은 주중 매일 06:30~22:30까지, 주말 및 공휴일 09:30~22:30까지입니다.

○ 한강 리버버스 내부에는 어떤 시설이 있나요?

- 개별좌석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좌석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간단한 식·음료 등을 판매하는 선내 카페테리아를 조성하여, 운항 중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한강 선착장까지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선박 내에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.

○ 어떻게 이용하나요?

- 기존 대중교통(버스·지하철)과 동일하게 교통카드 태그 또는 1회용 탑승권을 현장 발권기에서 구입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.

○ 리버버스가 운항되면 시민들의 일상은 무엇이 달라지나요?

시민들의 일상속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경험을 주는 리버버스
우리는 지금 수상교통시대에 살고 있다

| | | |
|---|--|---|
| <p>직장인 A씨 (망원 → 여의도 출근)</p>  <p>👤 tete_3030s님 외 3,207명이 좋아합니다.</p> <p>직장인 A씨는 여의도 회사까지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로 40분 이상 환승하여 출근 했는데, 이제는 리버버스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면서도 편안하게 출근하고, 심지어 여유롭게 커피와 샌드위치로 아침까지 챙길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.</p> <p>※ 시간 경쟁력, 편의성</p> <p>📍 ⑥ 망원역 → ② 합정역 → ① 당산역 → 여의도역</p> <p>#복잡한 지하철_안녕 #리버버스_타고_샌드위치_든든한_아침</p> | <p>대학생 B씨 (마곡 → 독성 등교)</p>  <p>👤 oiol_412님 외 2,905명이 좋아합니다.</p> <p>대학생 B씨는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,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 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리버버스에 편히 앉아 테이블을 펴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과제를 할 수 있어, 예전보다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</p> <p>※ 자전거 휴대편의성</p> <p>📍 ⑨ 양촌향교역 → ⑦ 고속터미널역 → 건대입구역</p> <p>#비싸디_비싸 #등교길_피세_교</p> | <p>직장인 C부장, D차장 (잠실 → 여의도 저녁 미팅)</p>  <p>👤 ungetto님 외 4,750명이 좋아합니다.</p> <p>직장인 C부장은 업무 특성상 퇴근 후 여의도 고객과의 미팅이 자주 있는데, 전에는 택시타고 이동해 막하기도 하고, 2만원도 훌쩍 넘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택시보다도 싸면서도, 막히지도 않고, 고객과의 미팅 준비도 편하게 하면서, 동시에 한강의 야경도 느낄 수 있는 리버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.</p> <p>※ 시간·가격 경쟁력</p> <p>📍 ② 잠실역 → ① 종합운동장역 → 여의도역</p> <p>#편안한_미팅 #업무_효율_무한_상승중</p> |
|---|--|---|